



보도시점

2026. 1. 22.(목) 11:00

1. 23.(금) 조간

배포

2026. 1. 22.(목) 09:00

농식품 바우처, 법제화로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하위법령 1월 23일 개정 시행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먹거리 안전망 구축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말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하였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향상되고,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홍보물 1부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나인지 (044-201-2271)
		담당자	서기관	최경철 (044-201-2274)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침

01 다양한 식품
균형있게 섭취하기

매 끼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균형있게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기



02 제철 농산물(채소, 과일),
우유 매일 섭취

국내산 제철 식품은 신선하고 영양소 함량이 높아
매일 충분히 섭취하고, 우유 및 유제품도
꾸준히 섭취하여 필수 영양소 보충



03 적절한 신체 활동과
건강 체중 유지

식생활 뿐 아니라 주 3-5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04 음식의 안전하고
조리와 보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올바르게 조리하고,
냉장/냉동 보관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05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커피, 탄산음료 등으로 물 섭취를 대체하지 않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12월 22일(월)부터 신청하세요!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영유아·아동 : 2008.1.1 이후 출생자
* 청년: 1992.11.~2007.12.31 출생자

사업신청 2025. 12. 22.(월) ~ 2026. 12. 11. (금)

지원기간 2026. 1. 2.(금) ~ 12. 31.(목)

지원내용 국산 과일류, 채소류, 원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신청
ARS | 전화신청 1551-0857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바우처 소개

사업신청 2025. 12. 22.(월) ~ 2026. 12. 11. (금)

지원기간 2026. 1. 2.(금) ~ 12. 31.(목)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및
34세 이하 청년 포함 가구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영유아·아동 : 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월 4만원 (1인 가구) / 월 10만원 (4인 가구)

가구원수(인)	1	2	3	4	5	6	7	8	9	10인 이상
지원금액 (천원)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원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백미, 수입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불가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ARS 신청

사용처 6만여 개 유통매장

오프라인 |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편의점, 로컬푸드매장, 친환경매장 등
(대형) 농협하나로마트, GS리테일(GS더프레시) 등
(편의점)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로컬푸드) 가창농협 로컬푸드 대일점, 경주농협 로컬푸드 유통점 등

온라인 | 농협몰, 인디마켓, 은누리몰 등

*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이용자 유의사항

- 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일 말일 까지 사용가능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월 지원금의 10% 미만인 경우 이월 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조회 가능

농식품바우처 신청 및 카드 수령·등록 방법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 01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회원가입 후
농식품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 단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방 필요
- 02 ARS**
고객센터 (1551-0857) 신청
① 개인정보수집 동의어부 ▶ ②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③ 배송지 선택(1.지역(주민등록주소지) 2.주민센터)
→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03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필요시):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가구원 중방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등

농식품바우처카드 수령·등록 방법

- ① 카드 배송**
이용자 신청 시 선택한 주소지로 배송
1. 지역(주민등록 주소지) 2.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카드배송
- ② 카드 수령**
- 이용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희망 시)
- 농식품 바우처 이용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본인 확인 후 카드 수령
- ③ 카드 사용 등록**
이용자(가구주, 가구원)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1551-0857) ARS 카드 사용등
록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